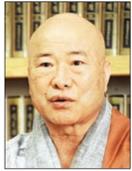


제27회 포교대상 성운스님

“불보살님 가피로 원만회향에 감사”

공로상엔 효명·일지스님
김기병·한복순 씨 선정



“는데 큰 상을 받았다”고 겸양하며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 포교의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밖에 공로상은 쌍계 총림 쌍계사 주지 효명스님, 인천불교회관 주지 일지스님, 김기병 포교사단 초대단장, 한복순 금정총림 법어사 신도회 수석부회장이 각각 수상했다. 원력상은 원도 신흥사 주지 법일스님, 산청 금수암 주지 대안스님, 백담사 템플스테이 연수원장 백거스님, 김상인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장, 박경숙 조계사 직장직능전법단장, 홍성란 포교사단 전문포교사, 대구 한국불교대학대관음사에게 돌아갔다.

포교원장 직무대행 송묵스님은 “종단은 물론 대사회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신 분 가운데 20년 이상 사회복지 및 지역포교, 계층포교를 위해 애쓴 성운스님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했다”며 “공로상 및 원력상 수상자들 역시 각 분야에서 꾸준히 전법활동을 해온 분들”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3편

어현경 기자 eonald@bulgyo.com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스님(사진)이 제27회 조계종 포교대상 중정상을 수상했다. 포교원은 지난 20일 포교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오는 11월16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시상식을 진행한다.

중정상을 수상한 성운스님은 출가해 40여년 간 지역은 물론 군, 교도소, 복지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부처님 법을 전했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 1996년 인덕노인복지관을 개관하고 이듬해 인덕어린이집 문을 열었다. 이어 1996년 노인전문요양원을 개원하며 복지불사를 이끌어왔다. 복지전문가답게 동국대 불교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며 불교사회복지론을 최초로 개설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논산 육군훈련소 군법당 불사의 주축을 마련했으며 5군단, 30사단 등에 군법당을 건립하고 지원하면서 30여년 간 1200여 회회를 봉행했다. 성운스님은 “포교대상을 수상할 만큼 포교에 기여했다고 생각되지 않

108산사순례 9년 대장정 마무리
내년 1월부터 53기도도량 순례



지난 20일 서울 수락산 도안사에서 시작된 108산사순례기도회 회향법회는 25일까지 계속된다.

108산사를 순례하며 새로운 신행바람을 일으킨 선목 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회주 혜자스님, 도안사 주지)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수락산 도안사에서 제108차 순례기도회 및 회향법회를 봉행하며 9년 동안의 순례를 회향했다.

지난 20일 오후1시부터 시작된 회향 첫 날 108산사순례기도회주 혜자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삼천리 금수강산 108산사를 찾아 108참회하며 108번뇌를 소멸하며 108자비나눔 선행공덕을 쌓아온 순례의 원만회향에는 불보살님의 가피와 회원님들의 기도가 함께 했기 때문”이라며 “기도한 공덕으로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를 통해 “오는 9년간의 여정에 대한 동영상을 보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순례를 해온 회원 여러분들에게 어떤 덕담이나 존경어린 치사도 대신할 수 없을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라는 한마디 말로 대신한

다”고 말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2006년 9월 도선사에서 순례를 시작한 이후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을 비롯해 전국의 유명 기도사찰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5000여명의 회원들이 순례해 한국불교 신행의 새로운 이정표를 썼다. 순례기간 중에서는 하늘에서 오색무지개가 70여회 뜨는 등 이적(異蹟)을 일으키기도 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순례 도중에 회주 혜자스님을 통해 부처님의 탄생지인 룸비니 동산에서 채취해 온 ‘평화의 불’을 전국 산사에 밝히기도 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회향을 기념해 도안사에 ‘108산사 9주년 원만회향 108일 가피 기도’를 11월26일부터 108일 동안 봉행한다. 또한 9년 동안 다녀온 108산사에 대한 기념비를 세운 동산을 조성해 지난 20일 기념벽비 제막식을 가졌다.

한편 108산사순례기도회는 내년 1월부터 ‘선목 혜자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53기도도량 순례’를 입재해 108산사순례기도회의 의미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 관련기사 13편

여태동 기자 tdyeo@bulgyo.com

社告

2016 불교신문 신춘문에 공모

불교신문은 불교문학 신예작가 등용문인 ‘2016 불교신문 신춘문에’를 공모합니다. 한국불교 문단에서 수많은 문인을 배출해 온 역사와 전통의 불교신문 신춘문에 불교문학에 관심있는 신진작가들의 많은 응모를 기대합니다.

- 응모기간 : 2015년 11월 9일(월) ~ 12월 9일(수)까지
- 응모대상 : 불교문학에 관심이 깊은 신진작가
- 공모분야 : 단편소설 부문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동화 부문 :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시·시조 부문 : 5편, 5편이상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평론 부문 : 200자 원고지 60매 내외
- 상금 : 단편소설 500만원 동화 300만원
시·시조 300만원 평론 300만원
* 당선작은 각 분야에서 1편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작 선정
* 관련법에 의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 당선작 발표 : 2016년 1월 1일 신년특집호 (당선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접수처 :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3번지 전법회관 5층 불교신문사 신춘문에 담당
- 유의사항 : 1. 갈봉투에 신춘문에 현상공모작품(응모분야포함)임을 명시해주시시오.
(서류봉투에 담아 접수바랍니다. 일반우편봉투 접수 불가)
2. 기 발표 원고 및 표절, 타 신문이나 잡지에 중복 응모된 작품임이 밝혀지면 당선에 취소됩니다.
3. 마감일 18시 이전 도착분 작품에 한하며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수상자에 대한 판권은 본사가 소유합니다.
5. 작품 맨 첫장에 작품과 별도로 응모분야, 인적사항(본명, 나이, 주소, 연락처)을 기입해 주십시오. (작품내용 안에 인적사항 명기하면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6. 우편접수와 내방접수만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서 응모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다.
(해외에서 접수시 한국내 연락 가능한 연락처 필히 기재 / bud22@bulgyo.com)
- 문의 : 02)730-4488(신춘문에 담당)

불교신문사

2015 불교합창페스티벌

10월25일... 전국 22팀 동창

전국 불교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루는 ‘2015 불교합창페스티벌’ 제6회 찬불가합창경연대회가 오는 25일 오후1시 서울 덕계아트홀에서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한국불교음악인협회 등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불교합창단의 발전과 교류, 불교음악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국 사찰 등에 소속된 불교합창단 22팀이 참석해 그 동안 쌓아온 실력을 뽐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이날 심사를 거쳐 대상 1팀에는 500만원, 최우수상 1팀 3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 장려상 6팀 각 50만원, 지휘자

상 1명 100만원, 반주자상 1명 50만원 등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총무원 문화부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전국 각지에서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였고, 시상규모도 확대된 만큼 불교음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실 있는 문화축제의 자리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정철 기자 hjc@bulgyo.com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중국 사민국제물용품전시회에 참가한 한국관의 모습. 작년 대비 면적을 2배 늘리고 임체부스를 도입해 현지 관광객에게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 관련기사 12편

중국 사민=

신재호 기자

air501@bulgyo.com

총본산 성역화불사 ARS 후원 : 060-700-1027

혜성스님 “10·27법난 피해자 지금도 고통”

8면

전국의 선학원 분원 스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우리 종단은 선학원 이사진과 대화와 협의의 통행, 심지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단의 협의안까지 제안하면서 선학원과 결별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학원 분원의 창건주, 분원장, 도제 스님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종단과 함께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1. 우리 종단은 선학원 정상화를 위해 선학원 이사장 스님과 이사 스님들에게 지난 4월 다음 5개항의 협의안을 제안했습니다.

- 가. 멸빈된 이사 지위 원상회복
- 나. 선학원을 특별교구로 지정
- 다. 중앙총회의원 2석 배정
- 라. 원로의원 1석 배정
- 마. 분원장급 임원에 대해 선거권, 피선거권 부여

2. 종단에서는 선학원이 종단의 현 집행부와 대화를 거부한다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된 후 대화를 이어갈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 경우 선학원의 탈종단화 행보 중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나 선학원 이사회에서는 이 역시 거부하였습니다.

종단은 이처럼 선학원 분원의 창건주와 분원장 스님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학원 이사장 스님과 이사 스님들은 선학원 자체 수계와 승려증 발급, 별도 가사제작 등 탈종단 조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종단과 선학원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은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의 개인 뜻이 아니라 종단적 합의사항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종단은 선학원과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대화와 협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선학원 이사회는 이제 더 이상 일부 이사 스님들의 이해관계나 편벽된 사고에 머물지 말고, 종단과 선학원이 한 뿌리임을 확인하려는 창건주와 분원장 스님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대화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佛紀) 2559년 10월 20일

총무원장 자승

⊕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성문 합장

호계원장 지원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